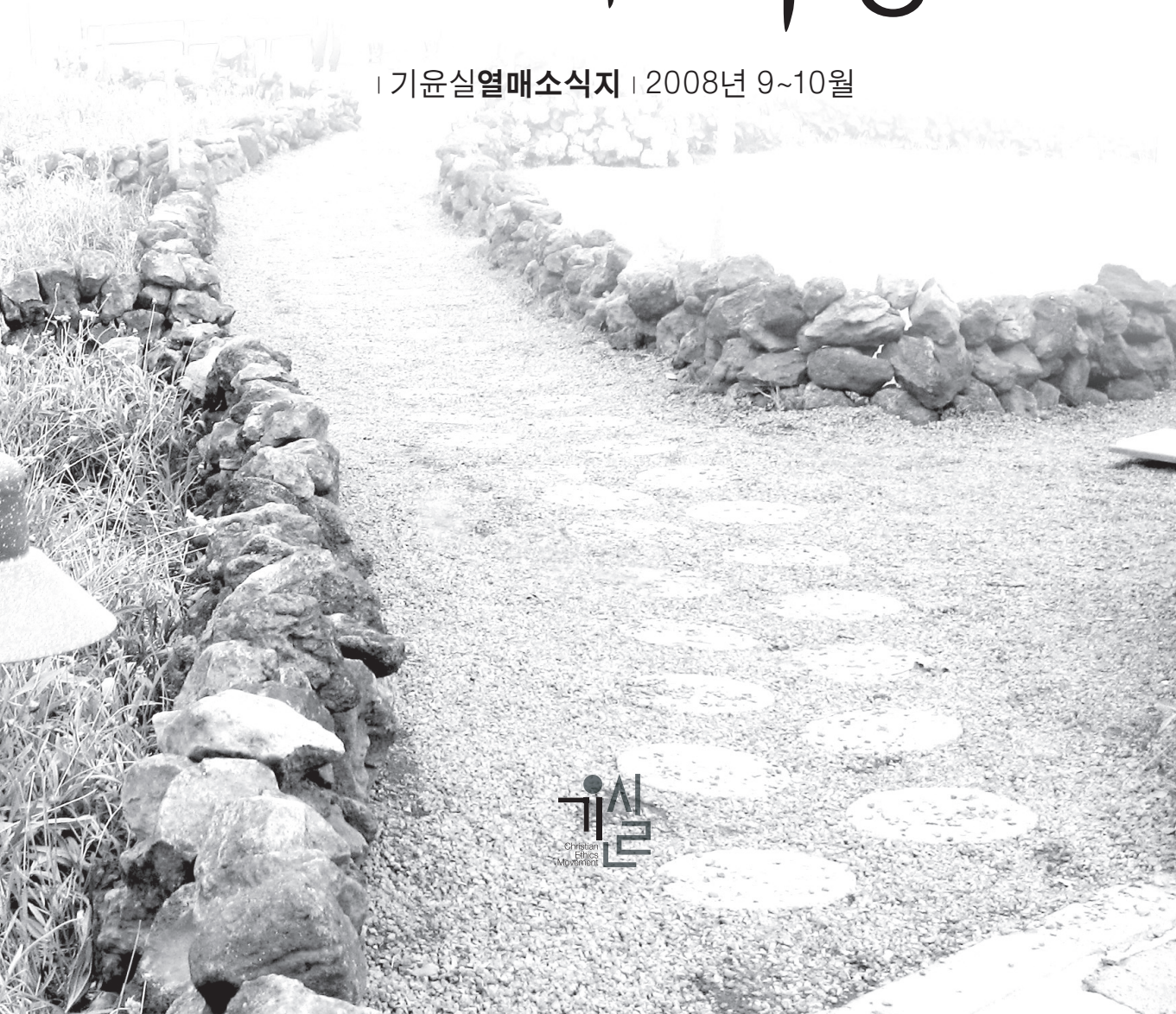
신뢰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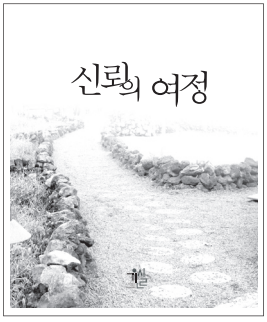
| 기윤실**열매소식지** | 2008년 9~10월



기윤실
Christian Ethics Movement

About the Newsletter

2008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9~10월)



발 간 개 요 기윤실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Trust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 조직보다 먼저 기윤실이 신뢰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 - [신뢰의 열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은 더 나은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인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격월) 양식을 넘어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작 성 기 준 본 사역열매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민단체인 기윤실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		기 윤 실
프로필		① 열매소식지 소개, 조직구조, 목차, 비전체계도, 비전메시지
보고 원칙 및 지침		② **열매 관점** 핵심사업 선정(중요성)과 협력파트너(이해관계자) 소개 / 9대 핵심사업
이해관계자		③ **협력적 관점** 회원, 교회, 임원, 연대단체
경제		④ **재무적 관점** 회계보고(전 분기와 비교하여 보고), 후원자명, 재정투명화 원칙
환경		⑤ **환경적 관점** 내부적 노력, 외부대상(교회, 회원) 캠페인
사회	노동여건	⑥ **학습과 성장관점** 간사역량, 조직역량, 영성개발
	인권부분	
	사회적부분	
	제품책임	해당사항 없음
기타		⑦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광고

※ 기윤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①열매관점 ②협력적 관점 ③재무적 관점 ④환경적 관점 ⑤학습과 성장 관점

보 고 기 간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 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20%의 그린라이트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여 콩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뢰의 여정 CONTENTS

	보고서 개요	002
	목차	003
	비전메시지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을 시작하며"	004
열매관점	핵심사업소개1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	006
	핵심사업소개2 저작권 개정 입법운동	008
	핵심사업소개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009
	핵심사업열매성취율	010
협력적 관점	연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화이트밴드 캠페인"	012
학습과 성장 관점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013
재무적 관점	7~8월 회계보고	014
기타	행사안내 기윤실 후원을 위한 2008 사역투자의 밤	015
	활동보고·활동계획·기도제목	016
	30일의 신뢰여정 후기 및 신청안내, e-library 소개	017
	창의상상이야기 알쏭달쏭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018
	책광고 나쁜 그리스도인(살림)	019
환경적 관점	환경캠페인 "STOP CO_2캠페인"	020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섬기는 |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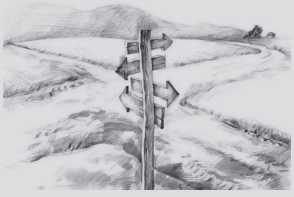
이사 우창록(이사장) 강영안 권장희 김동호 김일수 김충환 김홍섭 박상은 박은조 방선기 백종국 송인수 오정현 이동원 이우근 이의용 이장규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황형택 **감사** 임성빈 황호찬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 김병연(본부장) **삶의정치** · **윤리운동본부** 김선욱(본부장) **생활신앙실천운동본부** 신동식(본부장)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운영위원장)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김은혜(위원장) 신은정 신재용 심경미 정성진 정희경 최정은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소장) 강영안 강진구 김병연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송해룡 신국원 정성진 최재덕 최태연 추태화 **디자인경영위원회** 이순인(위원장) 이재우 정웅태 최철웅 **사회복지위원회** 김현호(위원장) 권오용(부위원장) 강영실 김동배 김동엽 김미혜 김수정 김혜란 두재영 두준기 라창호 박정숙 박정수 백은령 손인웅 송시섭 신산철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규 이영분 이창희 장동한 조재호 조태례 조홍식 최성재 **신뢰받는일터만들기위원회** 이용기(위원장) 김인숙 박재우 **신학위원회** 김영일 김동춘 김승곤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인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상원 이혁배 임성빈 정광덕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홍순원 황봉환 **사무총장** 양세진 **사무처** 안금주(부장) 조제호(부장) 최옥준(간사) 임희연(간사) 김문(협동) 김지숙(협동) 윤나래(협동) 한병선(협동) **협력단체**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공의정치실천연대·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문화연구소·기독경영연구원·기독변호사회·기독교공명선거연대·기독교학문연구회·낙태반대운동연합·뉴스미션·크리스천라이프센터·놀이미디어교육센터·성서한국·좋은교사운동·직장사역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광주 | 조영미 국장 062-222-5382	부산 | 김기현 국장 051-462-1558	안동 | 권정훈 간사 054-857-7025
울산 | 류형철 간사 052-285-2072	익산 | 박병주 목사 018-231-0684	인천 | 우조은 간사 032-867-2740
전주 | 김윤배 목사 063-644-0492	진주 | 055-753-1484	청주 | 이창호 국장 043-274-5852
대전 | 김주홍 처장 042-322-6464	LA | 유용석 장로 cem_la@yahoo.com	워싱톤 | 강창제 장로 info@cemusa.org

기윤실 열매소식지 2008년 9~10월호 **통권** 212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우창록 **발행일** 2008. 9. 22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제호, 임희연 **디자인** 김문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을 시작하며



1987년 창립된 기윤실은 21주년을 맞이하며 운동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통해 신뢰운동(Trust Initiative)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우리의 미래는 과연 희망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시민운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의식 중에서도 기윤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몰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3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봄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자기표현과 주장의 문화를 접하면서 기독시민운동은 무엇을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이며 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표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기독시민운동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윤실 회원구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말 현재, 전체 회비를 내는 총 개인회원 836명(100%) 중, 20대 회원은 38명(4.5%)이며, 총 회비납부액 11,225,000원(100%) 중 20대 회원이 내는 회비의 총 액은 245,000원(2.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기윤실은 운동의 미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말해왔지만, 실상은 운동의 주체가 될 20대 청년들의 참여활성화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운동의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의 시대가 주는 고민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로 전국적으로 불교계와 불자들이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집단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헌법적인 토대 위에서 종교의 다원성이 보장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법적 토대위에서 합당하게 인정받는 종교의 다원적 상황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윤실은 분명한 신앙고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패러다임으로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에서 3년에 걸쳐 조사한 미국의 16세-29세 사이의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나쁜 그리스도인], 살림: 2008)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타인을 판단하는', '위선적인(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 '현실과 동떨어진', '구식의', '타인에 둔감한', '지루한',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비단 미국만의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문화적, 종교적 다원적 상황 앞에서 기윤실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를 담아내는 기독교시민운동은 무엇인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전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아내고 또한 변화된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기윤실은 이러한 고민 앞에서 기윤실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그룹은 우선 20대의 기독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20대 기독청년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시민운동의 방향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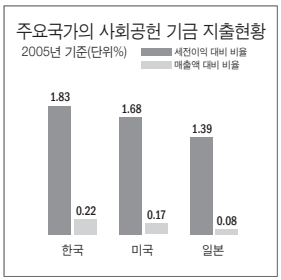
기윤실 운동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문화와 종교, 가치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진리실천단으로서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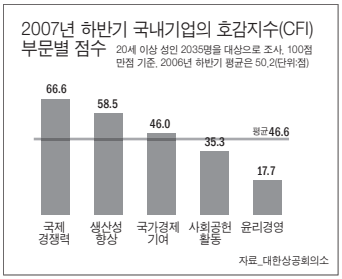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의 사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윤실의 사역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08.9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사무총장 양세진

사회복지를 넘어 통합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상(像)을 제시합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이윤창출 등의 경제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시혜적 자선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통합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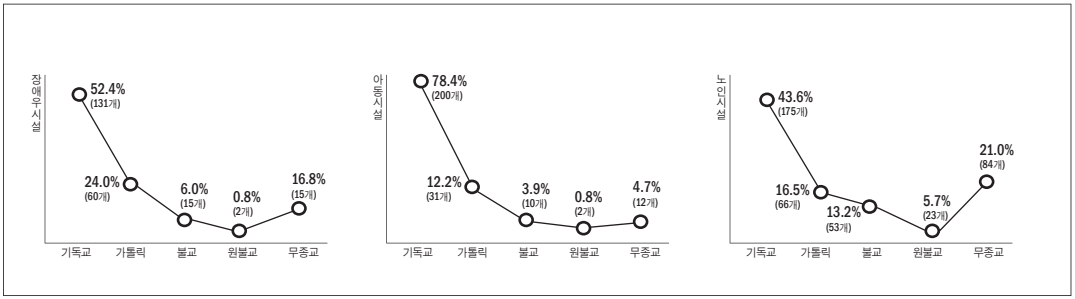
| 통계01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주요국가의 기업 사회공헌 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세전이익 대비 또는 매출액 대비 비율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기금을 사회공헌을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2년마다 조사하는 국내기업의 호감지수는 2005년(평균 50.2)에 비해 2007년(평균 46.6)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 등의 다원적인 변화의 요구에 보다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단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발효될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26000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기업, 정부, 비영리, 종교 등)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함에 따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 자원봉사, 소수자 인권,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등 보다 통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전이 부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현황(2005)- 좋은 종교, 좋은 사회(김홍권 지음 / 예영커뮤니케이션) p.81에서 인용



| 통계02 | 2005년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현황에 따르면 장애우시설은 52.4%, 아동시설의 78.4%, 노인시설의 43.6%를 개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Church Social Responsibility) 2.0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복지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사회적 가치를 통합해 내는 사회적 책임의 신학과 철학 그리고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심포지엄 이후에는 각 영역별로 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 교회들이 실천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심포지엄

사회복지를 넘어 통합적 사회적 책임으로

2008년 10월 6일(월) 오후 7시

장신대 여전도회기념음악관 1층 연주실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원 | 바른교회아카데미, 목회와신학, 성서한국, Young208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순서 사회 |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1. 인사말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2. 주제발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배운다 : 양용희 대표
     (엔씨스쿰,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 노영상 교수
     (장신대 기독교윤리학)
3. 영역별 지정토론
   - 환경 : 김영균 소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
   - 자원봉사 : 박윤애 사무총장(볼런티어 21)
   - 장애인 : 배융호 사무총장(장애인권의시설촉진시민연대)
   - 다문화가정 : 정혜실 공동대표(다문화가족협회)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 손병덕 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과)
   - 교회의 사회적책임 사례 발표 : 조제호 팀장(기윤실)

담당 | 조제호 팀장 02-794-6200, jehoc@hanmail.net

이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운동

조제호 팀장

사례 1 | 시민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자에 의해 약간의 수정만 거쳐 해당 신문에 게재되었다. 보도자료를 보낸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이걸 문제 삼아 언론사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례 2 |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SW에 대한 정품인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 1,000곳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정시기까지 정당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SW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2007년 6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정부는 그동안 파괴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을 지난 7월 16일 입법예고하여 '슈퍼 저작권법'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자칫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차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리어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지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것인데,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윤실은 저작권법 1조의 취지대로 법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개정 입법운동은 공정이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 제한의 포괄적인 법 적용과 종교단체의 일부 면책 규정 신설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의 저작권법 개정 입법운동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창작의욕 고취)와 이용자의 접근보장(공정이용)의 양극단에서 중심을 잡고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이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10월 세계 국가투명성지수를 발표하는 것과 같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발표하여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여론조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윤실에서 2007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발한 '한국교회신뢰지표'가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본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둘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회신뢰도 측정은 단순히 지수를 통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일반 시민의 교회신뢰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뿐만 아니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나 활동들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신뢰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기윤실의 '한국교회신뢰지표'를 토대로 한 개별 교회 수준에서 신뢰도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호 점검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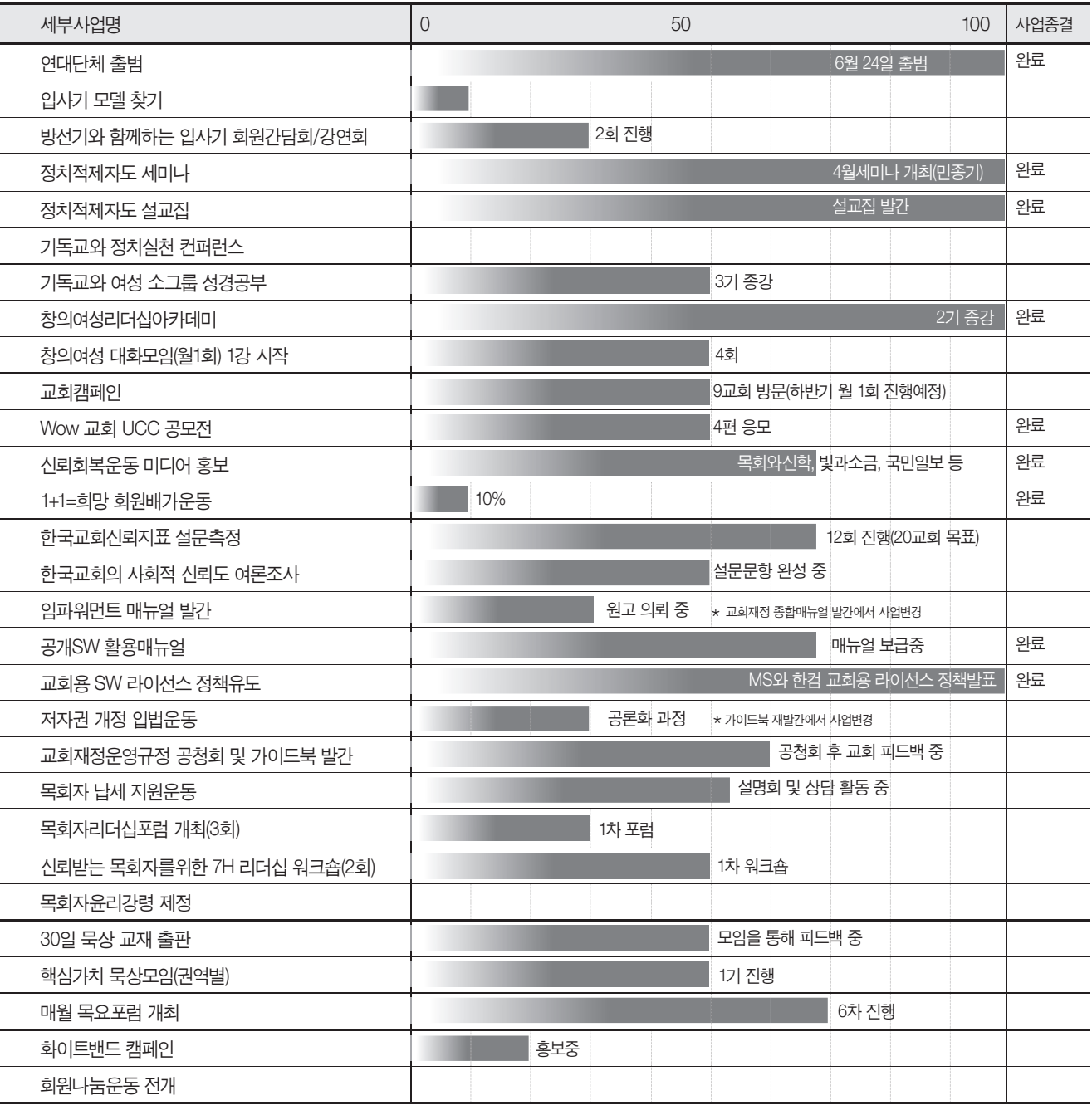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한국 교회와 교인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려는 노력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보다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 혹은 신뢰도가 증가하고 이는 교인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발전이다. 발전된 시민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가 높은 사회이다. 그리고 신뢰수준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가 질 높은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비롯되는 신뢰도의 증가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 혹은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임연구원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과,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 검토위원회 | 황호찬(세종대 경영학과, 검토위원장),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양세진(기윤실), 양희송(바른교회아카데미), 이상화(한목협),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최정은(사회복지법인 W-ing), 최호윤(제일회계법인), 황병구(한빛누리재단)
-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 주요일정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8월 27일)
  - 전화여론조사 :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10월 초)
  - 결과발표 세미나(11월 중순)

2008년 1~8월 기윤실 9대 핵심사업 열매 성취율

운동영역	사업명	담당
사회신뢰 회복운동	1.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운동)	방선기 목사 임희연 간사
	2.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김선욱 교수 최욱준 간사
	3.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김은혜 교수 윤나래 간사
교회신뢰 회복운동	4. 신뢰회복캠페인	정책기획팀 조제호, 최욱준, 임희연
	4-1. 한국교회신뢰지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4-2. 교회저작권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5. 교회재정투명화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최욱준 간사
	6.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 목사 조제호 팀장
회원 실천운동	7.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30일 교재 발간 및 묵상나눔 모임	신동식 목사 최욱준 간사
	8. 기윤실 목요 포럼 "저자와의 만남"	노영상 교수 / 임희연 간사
협력운동	9.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운동	양세진 사무총장 임희연 간사

*** 100이 되면** 핵심사업에 대한 열매를 성취한 것으로 봄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올해 총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 핵심사업으로 뽑아주신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사업으로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01 | 화이드밴드가 무엇인가요?

화이트밴드는 '빈곤을 종식시키자(End Poverty)'란 구호가 적힌 흰색 실리콘 팔찌를 가리킵니다. 국제기구인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 GCAP)"에서 각 사람들에게 팔찌를 나눠주고 일정 장소에 모여 앉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는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일어서자는 의미였습니다.

02 |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매일 5만 8000여명이 굶주림과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에 대해 2000년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과 기아를 없애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결의하였는데, 이것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GCAP에서 제안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0여개국가에서 1억 5천만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입니다.(2006년)

03 |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에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찬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설립하였고, 이 단체를 통해 캠페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12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올해부터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포럼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04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① **개인** 화이트밴드를 구입하여 손목에 착용하기 〈구입처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www.endpoverty.or.kr), 굿네이버스 오렌지존(www.gnshop.org)〉

② **교회** 교회 건물 외벽에 대형 화이트배너(현수막) 설치하기 〈참여문의 : 기윤실〉

③ **기타** 평소에 지구촌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절제·나눔·기부 문화를 생활화하기

문의 | 임희연 간사(070-7019-3760, lhy1244@naver.com)
사진출처_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7월 1일~ 8월 31일

7월 | 김창섭(DP0800100) 강홍준(DP0800101) 박한옥(DP0800102) 정명혜(DP0800103) 정금영(DP0800105) 정유진(DP0800132) 박영란(DP0800133) 최민규(DP0800134) 최현규(DP0800135) 최주리(DP0800136) 이남경(DP0800137)

8월 | 김준희(DP0800139) 김영훈(DP0800140) 문애정(DP0800144) 오성근(DP0800145)

2008.7. 24~9.30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본 코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간사 개개인 뿐 아니라 기윤실이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8·18(월)~25(토)_SPSS 통계프로그램 교육
조제호
8·21(목) 19:00_5차 기윤실 목요포럼
: 김회권 교수 간사모두
9·8(월) 19:00_제1회 지구촌포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의 조화) 임희연
9·18(목) 19:00_6차 기윤실 목요포럼
: 김선욱 교수 간사모두

협력을 통한 변화

7·25(금)~26(토)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운동가대회 기획워크숍 양세진
8·4(월)/8·20(수)/9·11(목) 19:00_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입법운동 기획회의 양세진
8·12(화)/8·20(수) 10:00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운동가대회 기획회의 양세진
8·13(수) 10: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욱준
8·19(화)_교갱협 수련회 교회신뢰운동 홍보 임희연
8·20(수)_한미준 세미나 교회신뢰운동 홍보 최욱준
8·22(금) 19:00_기독교연합기금 이사회/기획위원회 연석회의 양세진
8·26(화) 12:30_시민단체사회적책임 운영회의 양세진
8·27(수) 19:00_기독교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간담회 양세진
9·2(화) 16:00_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임희연
9·5(금) 15: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욱준
9·8(월) 18:00_종교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독교 간담회 양세진
9·18(목) 07:00_기독교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간담회 양세진, 조제호
9·18(목)~19(금)_시민환경운동가대회 안금주, 최욱준
9·23(화)~24(수) 예장 통합/합동, 기장 총회 교회신뢰운동 홍보 조제호, 최욱준
9·24(수) 13:00_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임희연
9·25(목) 18:00_성서한국 이사회/집행위 연석회의 양세진, 조제호

재무적
관점#

2 0 0 8 회 계 보 고

07~08

기간ㅣ2008 년 07월 01 일 부터 2008 년 **8월 31 일** 까지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8년 5월~6월	2008년 7월~8월	계정과목	2008년 5월~6월	2008년 7월~8월
Ⅰ. **사업수익**	50,165,000	48,743,000	Ⅰ. **사업비용**	52,125,504	50,025,039
① **회비**	24,765,000	24,828,000	① **인건비**	10,003,328	10,403,328
㉮회원회비	19,618,000	19,061,000	② **사무관리비**	9,934,418	12,516,049
㉯이사회비	2,530,000	3,230,000	③ **사업비**	32,187,758	27,105,662
㉰지역회비	2,617,000	2,537,000	㉮사업인건비	13,075,000	14,745,000
② **일반후원금**	20,600,000	23,315,000	㉯사업행사비	5,584,700	1,936,492
㉮교회,기관후원금	20,520,000	23,290,000	㉰홍보사업비	5,800,318	3,867,670
㉯간사후원금	80,000	25,000	㉱교육훈련비	12,000	24,000
③ **특정후원금**	3,850,000	600,000	㉲지역사업비	3,715,740	3,532,500
④ **사업수입**	950,000	-	㉳발전기금	4,000,000	3,000,000
Ⅱ. **사업외수익**	2,460,908	102,063	Ⅱ. **사업외비용**	3,313,800	-
수 입 계	52,625,908	48,845,063	**지 출 계**	55,439,304	50,025,039
당기감소액	2,813,396	1,179,976	**당기증가액**		
총 계	55,439,304	50,025,039	**총 계**	55,439,304	50,025,039

1. 자세한 월별 운영성과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기윤실은 재정에 있어서 더 높은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기준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②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③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④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⑤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윤실 **후원구좌** (예금주ㅣ**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ㅣ 우리은행 821-05-002520 ㅣ 농협 074-01-121183 ㅣ 우체국 012401-01-001137 ㅣ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ㅣ 신한은행 326-05-010678 ㅣ 하나은행 109-228746-00104 ㅣ 외환은행 144-13-05572-6 ㅣ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ㅣ**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ㅣ 지로번호 7530353

기윤실 후원을 위한 2008 사역투자의 밤에 초대합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윤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고 기윤실을 위해 따스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후원자들을 모시고 기윤실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후원의 밤이라는 명칭과 병행하여 사역투자의 밤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윤실 사역에 후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윤실 사역에 투자하시는 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보장되는 100% 확실한 투자라 믿습니다.

아울러 평소 기윤실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기윤실 사역에 관심은 갖고 계셨지만,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걸음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기윤실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보시고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사무총장 양세진

- **일시** 2008년 11월 17일(월) 18:30 ~ 21:00 (지금 바로 일정표에 기록 부탁드립니다.^^)
- **장소** 미정(찾아오기 쉽고, 주차하기 쉽고,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섭외 중)
- **주요 프로그램**
  - 정성과 맛이 가득한 식사
  -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말씀
  - 감동이 있는 기윤실 사역 비전 공유
  - 신나고 즐거운 어울림 한마당 등
- **후원계좌** 하나은행 105-910006-45604(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활동보고
활동계획
기도제목#

활동보고

8/01(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1차 검토회의
8/10(일) 송죽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8/21(목) 5차 기윤실 목요포럼_김회권 교수(삼각교회)
8/24(일) 입사기운동 12차 회의
8/27(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청어람)
8/28(목) 5차 상임집행위원회(율촌)
8/31(일) 한사랑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9/06(토) 입사기운동 13차 회의
9/18(목) 6차 기윤실 목요포럼_김선욱 교수(삼각교회)
9/18(목)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 1차 회의
9/19(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차 검토회의
9/21(일) 일산은혜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활동계획

10/01(수) 입사기운동 14차 회의
10/06(월) 19:00_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 (장신대)
10/12(일) 시흥소망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10/16(목) 19:00_7차 기윤실 목요포럼 : 황은우 목사 (삼각교회)
10/17(금) 화이트밴드캠페인
10/20(월)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회-가정-학교를 연계하라" 세미나
10/26(일) 세검정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11/17(월) 기윤실 후원을 위한 사역투자의 밤
11/20(목) 19:00_8차 기윤실 목요포럼 : 주승중 교수(삼각교회)

목회자 **납세** 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cfnet.kr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 이메일 | happytax@cfnet.kr
- 전화 | 070-8237-5886

활동스케치

8/27(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공청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 27일 명동 청어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공청회는 10월 초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설문문항의 엄밀성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책임연구원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주제발제와 다섯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분 한분 이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연례적으로 조사하여 결과추이를 살펴보려면 첫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이 엄격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한국교회의 유익이 되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의견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기도제목

1_'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와 '기윤실 사역투자의 밤' 등 하반기 준비하는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기윤실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_기윤실 실무자와 후원회원, 더 나아가 후원교회와 협력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Tip01. 이번호 신뢰의 여정을 보시고, 개선방안 또는 소감, 오타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나쁜 그리스도인(살림)"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0월 18일(금)까지 이메일(cemk@hanmail.net)로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Tip02. 지난호 소식지가 발간된 후 온라인으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현재의 소식지에 만족하셨지만 〈사이즈를 일반책 크기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과 〈좀 더 심층적인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분이 계셨습니다. 사이즈와 심층코너의 경우 판형과 페이지 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올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 소식지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윤실 소식지 "신뢰의 여정"에 관심가지고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30일의 여정

글 | 손열호 회원

먼저 30일간의 신뢰여정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 평화, 책임, 배려, 정직…… 사실 처음에는 개념 자체가 하나같이 다들 무거운 것이라 쉽게 다가 오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왠지 사회운동 또는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은 나와는 멀게 느껴지고 지금의 나와 이것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사 이것들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 땅이 바뀌고 주변이 변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과 같은 자세로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5가지의 다른 주제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과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직후 소그룹 형태로 모여 들은 주제와 한 주간 각자의 삶에 대해 편하게 나눈 시간은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한 권씩 나눠준 교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각 주제에 대해 제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임이 각 교회 내에 활성화가 된다면 교회가 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분의 음성 앞에 공동체가 함께 즐거이 반응한다면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 는 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윤실 e_library

서비스를 통해
21년간의 자료를 **공개**합니다.

기윤실은 87년 창립 이후 지난 21년 동안 진행해 온 각 분야의 운동 자료들을 회원 여러분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블로그 〈e_library〉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e_library

서비스 내용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의 발제 원고, 강연회 및 아카데미 강의안, 자료집 및 단행본 원고, 칼럼, 성명서 등

이용방법 각종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을 통해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 중 '블로그' 검색을 통해 〈e_library〉의 자료가 검색됩니다.

블로그 주소(http://blog.naver.com/e_library)를 통해 〈e_library〉로 직접 들어오셔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최욱준 간사 (070-7019-3759, chamcuj@hanmail.net)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30일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등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서 진행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면 기윤실이 직접 찾아 뵙고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구성

주	주제	강사
1주차	정직과 희망 (정직)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2주차	합당한 삶 (책임)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김선욱 교수(숭실대 철학과)
3주차	의를 추구하는 삶 (정의)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
		유경동 교수(감신대 신학과)
4주차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평화)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김호경 교수(서울장로회신학교, 신약학)
5주차	작은 자 하나에게 (배려)	김은혜 교수(숭실대 교양학부)
		구미정 교수(숭실대 겸임교수, 기독교윤리학)
6주차	우리 교회 실천 캠페인 만들기 워크숍	

주제 강의 후 일주일 동안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묵상교재를 통해 성경을 묵상합니다.

강사 및 프로그램 구성은 신청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최욱준 간사 (070-7019-3759, chamcuj@hanmail.net)

알쏭달쏭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정리 | 조제호 팀장

01 | 윤실이는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인해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살펴보던 중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표시가 하나 보이더군요. "무농약농산물".. '이건 뭐지...??' 관심을 가지고 과일과 야채를 보다보니 친환경 농산물 봉지에 다양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친환경이면 다 유기농 아닌가? 근데 유기농과 무농약은 무슨 차이지?'

02 |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윤실이는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궁금증을 찾아보았습니다.

- **유기농 농산물** 최소 2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3년)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시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하게 됨)
- **무농약 농산물**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 이내 사용
- **저농약 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기준치의 1/2 이하로 사용(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음)

03 | '아! 친환경농산물 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이제야 윤실이는 친환경농산물 구분표시를 이해하게 되었고, 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04 | 윤실이가 제안하는 친환경농산물 구분방법

-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내추럴(natural), 로하스 등은 국가가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표기방법이 아닙니다.
-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표기는 농산물에 적용하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 표시와 축산물에 표기되는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유기축산물(=유기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무농약농산물) 표기입니다.

05 | 윤실이가 제안하는 과일, 채소 건강하게 먹기(* 환경정의 정기간행물 우리와 다음 2008년 5.6월호 "이것만은 꼭 유기농을 먹자"에서 발췌 정리)

① **제철에 난 것을 먹는다** 제철에 난 과일은 가격도 싸고, 맛과 영양면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② **우리 땅에서 난 것을 먹는다**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장기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재배하였더라도 포스트 하비스트(수확 후 농약살포)의 위험이 있어요.

③ **껍질째 먹는다** 과일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농약의 위험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 먹는 경우가 많죠. 농약친 과일이라도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오히려 잔류농약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④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담금물에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식약청 시험결과에 따르면 흐는 물 보다 '담금물에 씻는 것이 농약 제거에 효과가 있답니다. 놀라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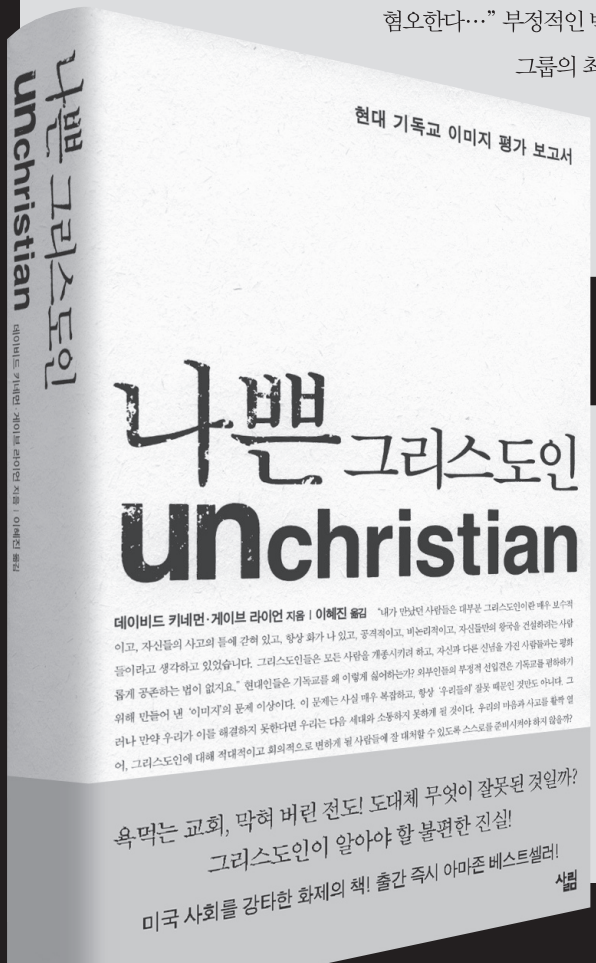
⑤ **유기농산물을 이용하자**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지만, 하나를 먹더라도 영양소를 생각하고, 우리 땅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기농산물을 이용합시다.~~

참고자료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
- 환경정의 정기간행물 "우리와 다음"

나쁜 그리스도인
unchristian

욕먹는 교회, 막혀버린 전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은 무시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안티 기독교의 시대, 그리스도인이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3년에 걸쳐 미국인 수만 명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위선적이다, 전도에만 목을 맨다,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일단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든다,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부정적인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기독교계 최고의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의 최신 보고서인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초상을 정직하게 그려내고 교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커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김병년 목사(다드림교회),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박성민 목사**(CCC),
방인성 목사(뉴스앤조이), **이강일 목사**(IVF복음주의연구소),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홍영기 목사**(교회성장연구소) **강력 추천!**

바나 그룹은 지금까지 치밀한 조사와 통찰력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 교계의 동향을 분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인 『나쁜 그리스도인』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 책은 귀한 도움을 줄 것이다. **_김명호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 게이브 라이언 지음 | 이혜진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448면 | 19,000원

사림

www.sallimbooks.com

환경적 관점 #

환경캠페인 3탄

실천하는 기윤실, "STOP CO_2캠페인"

얼마 전 북극의 얼음이 여름철을 맞아 녹으면서 최초로 북극해로가 열린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로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산화탄소(CO_2)로 인한 지구온난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먼 느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100년 한반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한반도에서는 백두대간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 구경을 하기 힘들어 지고, 키위 등 열대성 과일의 재배가 확대됨.
- 1월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어져 영하의 날씨를 이용한 각 지역 축제, 스포츠 레져 산업의 변화가 예상됨.
- 동해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 난류성 어종인 대형 문어, 가오리, 참치 등의 어획 증가 예상됨.
- 전국이 아열대기후로 변해 4계절이 아닌 3계절로 변화됨.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들 한 사람이 연간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각종 기상 이상 현상과 재해를 만들어 내는데, 온실가스인 CO_2는 일단 만들어지면 100년 이상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때문입니다. 때문에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38개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에 서명한바 있으며, 독일은 자발적으로 1990년보다 평균 21%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해가는 지구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CO_2절감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실제적 제안 ☝ |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주일날 교회에 갈 때 대중교통 사용하기(CO_2도 줄이고, 주일마다 제기되는 골칫거리 주차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실내 적절한 냉난방 온도 유지하기(최소한 넓은 공간에 혼자 있을때는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여 적절 온도를 유지합니다) ✌ | 어디에서나 절전 생활화하기(특히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예배당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는 냉난방 기구는 없는지 꼭 확인하기) ✋ | 전기기구의 코드 빼기 생활화하기-스위치가 있는 멀리탭 사용(대기전력 소모를 방지해 매달 10% 이상의 전기세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 | 환경 친화적 상품 사용하기(에너지 효율제품,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제품, 포장이 간소한 제품 등)

언제나 강조하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번거롭지만 **기독교윤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캠페인 1탄 _ 종이컵은 사양합니다
- 환경캠페인 2탄 _ 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시다

stop! CO_2